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 건축 폐기물 무단기 매립

피서객 안전 '비상'...해경 수사 확대

4km에 달하는 백사장에 청정해역으로 유명한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건축 폐기물이 무단기 매립돼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또 모래사장 곳곳에 건축 폐기물 조각들이 섞여 있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건축 폐기물은 완도군이 지난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군청이 공사감독을 소홀히 해 그동안 쌓아온 청정해역이란 명성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게다가 13일 개장을 앞두고 불법 매립 사실이 밝혀져 올 해수욕장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과정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공사는 ▲상수도관 2천500m ▲하수도관 387m ▲음용수기 5개를 설치하는 것(사업비 4천700여만원)으로, 완도 D건설사가 공사를 맡았다. 폐기물은 D건설사로부터 위탁받은 80여톤 상당의 건축 폐기물이다.

해경은 백사장 전 구간에 걸쳐 건축 폐기물이 불법 매립돼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완도군청 감독 공무원과 시공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매립 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도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건축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만큼 불법 매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군청

이 폐기물 처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그동안 청정해역으로 알려져 왔던 명사십리 해수욕장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상인 김모(여·42)씨는 "지난해 완도읍과 신지면을 잇는 다리가 개통되면서 60여만 명이 달하는 피서객들이 몰려와 제법 수입이 좋았는데 이번 일로 불통이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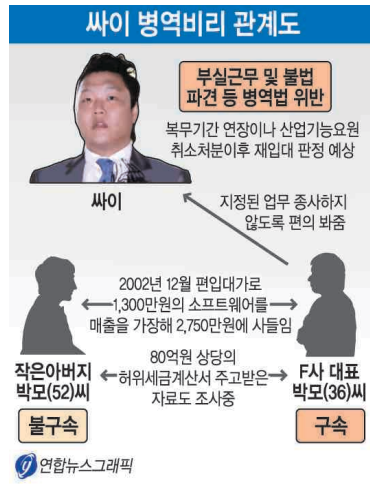
완도=정은기자 ejchung@/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불법 매립돼 있는 건축 폐기물을 주민들이 가리키고 있다. 해경은 증거 보전을 위해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매립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해,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백사장 곳곳에 건축 폐기물이 방치돼 있는 상태로 13일 개장, 손님맞이에 들어간다. /완도=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가수 사이 복무연장 또는 재입대

병역비리 3명 영장



병역특례업체에서 부실근무한 사실이 드러난 가수 사이(본명 박재상)가 복무기간 연장이나 산업기능요원 취소처분 이후 재입대 관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2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실근무 사실이 드러난 가수 사이를 포함해 병역특례근무자 7

명에 대해 부실근무 및 불법과건 등 병역법 위반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업체 F사 이사 박모(36)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이의 작은아버지 박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의 경우 급급수수에 직접적인 가담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형사입건 하지는 않았으나 지정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추후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F사 이사 박씨는 2002년 12월 사이의 작은아버지 박씨로부터 편입 대가로 소프트웨어 매출을 가중해 2천750만원의 매출을 뒤 사이가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도 판의를 봐 준 혐의다. 사이의 작은아버지 박씨는 특례요원 편입 대가로 F사 이사 박씨에게 2천7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정은기자 ejchung@/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니원침 (7234) 김동주



'채팅 여중생' 섬으로 유인

성폭행한 20대 3명 검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들을 섬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공익요원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도경찰은 12일 여중생들을 성폭행한 공익요원 오모(23·완도군 고금면) 등 3명을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 등 3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김양 등에게 "멋진 별칭이 있는 경치 좋은 바닷가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속여 남원에서 만난 김양 등을 승용차에 태워 완도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인터넷 버디버디(www.buddybuddy.co.kr)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전복 모 여중 3년 김모(여·14) 등 3명을 완도군 고금면 민박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

다. 김양 등은 성폭행 다음날 아침 오씨 등이 출근하기 위해 민박집을 비운 사이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김양 등은 성폭행 다음날 아침 오씨 등이 출근하기 위해 민박집을 비운 사이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완도=정은기자 ejchung@

완도=정은기자 ejchung@

더 좋은 건축·산업재 KCC

DS건설(주) KCC창호, 센스더어 대리점

KCC창호, 시스템창호 생산·시공

☎ 본사: (062)514-3002 ☎ 공장: (061)337-9605

(주)본드나라 KCC실리콘 페인트 대리점

실리콘·방수제·접착제·테이프

☎ 광주점: (062)525-9002 ☎ 전주점: (063)271-5051

동생은 빈집털이 형은 장물아비

○목포경찰은 12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온 이모(32·목포시 산정동)씨 형제 2명을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동생 이씨(29)는 지난해 12월31일 오후 7시30분께 목포시 용당동 장모(여·45)씨 집에 들어가 2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동생은 지난 2005년 11월 이후 5건의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었으며, 형은 동생이 목포 일대에서 33차례에 걸쳐 훔친 귀금속(3천126만원) 등을 시내 금은방에 처분해 왔다는 것.

○경찰 형이 금은방에 내다 판 장물 기록이 동생의 절도 물품과 비슷한 점에 착안, 통신 및 탐문 수사를 통해 의종은(?) 형제를 검거.

목포=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농협 '농촌사랑 회원' 100만명 명의 도용

경찰, 수사 나서

농협중앙회가 불법으로 고객들의 명의를 이용, '농촌사랑' 회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농협이 '농촌사랑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의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국 농협 영업점을 통해 100만 명 이상의 고객 명의를 무

단 차용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국가청렴위원회와 경찰청에 진정서를 낸 김모(39)씨를 불러 진정인 조사를 벌인 뒤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경우 해당 농협을 대상으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농협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들의 금전적

인 피해가 없었더라도 본인 동의없이 고객의 명의를 무단으로 차용했다면 개정 주민등록법 위반과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서 "농협이 무단으로 고객 명의를 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 비리로 인해 지난 4월 해지된 농협 직원이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진정인이 근무했던 영

▲농촌사랑 범국민운동본부=지난 2004년 10월25일 발족했으며, 농협중앙회장과 전경련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개인회원은 도·농 교류사업에 참가하고 기부금을 낼 수도 있다. 가입비와 회비 등은 없다.

업에서 고객의 명의를 무단으로 차용했는지 몰라도 전남본부 산하 영업점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광일기자 cki@kwangju.co.kr

소도둑 둘 구속

여수경찰은 12일 전남 농촌 지역 축사를 돌며 전복적으로 소를 훔친 안모(41·장흥군 대덕읍)·최모(42·)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훔친 소를 사들인 축산 농민 서모(42·화순군)씨와 소 매매를 알선하고 소가비를 챙긴 임모(37·)씨를 장물 취득 및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보성·여수·무안·강진 등 전남 축산농가에서 소 7마리를 훔친 혐의다.

도축업자인 임씨는 훔친 소 1마리를 도축료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중이었던 안씨에게 15만원을 받고 서씨에게 넘겼으며, 서씨는 2천870만원에 소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안씨와 최씨는 장흥 지역에 유혹주점을 개설하기 위해 범행을 모의했고, 인적이 뜸한 축사를 대상을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대한민국 1등여행사는 하나투어입니다. 하지만, 호남에서는 조이트래블이 1등 하겠습니까!"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대표이사 崔錦桓

일본

추천상품1 (광주출도착)

오감만족! 국내 최저가 일본 큐슈 온천 4일 279,000

▶출발일: 7월 3일

▶숙박: 아미나미 료나루 콘도

▶전일정 노담! 노출선! / 광주출·도착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2 (광주출도착)

통나루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299,000

▶출발일: 7월 11일

▶숙박: 빌라형 통나루 콘도+부천전통온천호텔

▶노출선! / 광주출·도착 기준 / 가이드 팀 별도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3 (광주출도착)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99,000

▶출발일: 7월 18, 19일

▶숙박: 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

▶전일정 노담! 노출선! / 광주출·도착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온천과 전통관광을 즐기세요!! 湯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8억원 영인보증보험 가입 / 여행자보험 가입

☎ 교통요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차량(가정용)에 포함, 국내선항공료(1인당), 관광진흥기금(1인당),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요건: 항공 및 선박, 전철버스 / 전차

☎ 경비: 없음 (단, 개인적인, 선책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취소발생일: 15일 이상

☎ 상가(도매)는 현금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일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

일본 큐슈 온천 3박4일 일정표

279,000 ▶출발일: 7월 3일

▶숙박: 아미나미 료나루 콘도

날짜	장소	교통	시간	일정	식사
1일	광주	전철버스	12:30	광주역 앞 집결(12:30) / 출발 후 부산 이동	휴게식
			18:00	부산 국제 여객선 터미널 도착 후 출국 수속	개별식
2일	카멜리아	카멜리아	18:00	부산 출발 / 후쿠오카 항발	항발
			08:00	후쿠오카 도착 / 후쿠오카 공항	항발
3일	구마모토	전일	08:00	호텔: 카멜리아 선내 숙박(다인실)	선내식
			11:30	선내 조식 및 하산 후 태재부리 이동	선내식
4일	아소	구주산	11:30	하산 후 아소 도착 후 출국 수속	개별식
			18:00	후쿠오카 도착 후 출국 수속	개별식
5일	구주산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6일	후쿠오카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7일	후쿠오카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8일	후쿠오카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9일	후쿠오카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10일	후쿠오카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11일	후쿠오카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12일	후쿠오카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13일	후쿠오카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14일	후쿠오카	전일	08:00	가상 및 조식 후 후쿠오카로 이동	개별식
			11:30	호텔: 빌라형 콘도(아미나미)	개별식

☐ 전일정 노담! 노출선!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광주 출도착 기준 ☐ 출국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광주에서 출발하는

장사(장가계) 전세기 직항

2007년 6월 16일 ~ 11월 28일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사람이 태어나서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코드	상품명	여행기간	출발	상품가
KCZP-1	[장사/장가계] - 모험 유람선, 천자산 케이블카	3박4일	6/16~7/13	수 549,000
KCZP-2	[장사/장가계/황석계] - 황석계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599,000
KCZP-3	[장사/장가계/천문산] - 천문산 왕복 케이블카, 황룡동	4박5일	6/16~7/13	토 639,000
KCZP-4	[장사 GOLF] (54H) - 청죽호C.C, 자산C.C, 옹호C.C	3박4일	6/16~7/13	수 699,000
KCZP-5	[장사 GOLF] (72H) - 청죽호C.C, 자산C.C, 옹호C.C, 청죽호C.C	4박5일	6/16~7/13	토 799,000

☎ 공문표(항공) : 공항세, 출국세, 전정비(항공, 현지교통, 유류세, 19인 여행보험)

☎ 대표항사(항공) : 단박(18,000), 기사(10,000), 기타(10,000)

☎ 대표항사(관광) : 단박(18,000), 기사(10,000), 기타(10,000), 클럽하우스 증식, 캐디, 클럽 렌탈비

☎ 상가(도매)는 현금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수기(7월 14일~8월 15일, 9월 22일, 9월 26일, 10월 7일) 요금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중국1-전세기상품

패키지1 (광주출발)

고구려 문화 유적지 탐방 CZ 4일 569,000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패키지2 (광주출발)

백두산/심양 CZ 4일 699,000 ▶(7/13) 매주 금요일 출발

패키지3 (광주출발)

북경/백두산/심양 CZ 5일 839,000 ▶(7/13) 매주 월요일 출발

중국2-대만항공상품

패키지1 (광주출발)

상해/소주/항주 KE 4일 299,000 ▶6월 20일 / 7월 4, 11일

패키지2 (광주출발)

상해/소주/항주/무석 KE 5일 319,000 ▶7월 7, 14일

패키지3 (광주출발)

상해/장가계/원가계 KE 4일 719,000 ▶6월 20, 27일 / 7월 4, 11일

패키지4 (광주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789,000 ▶6월 23일 / 7월 7일

패키지5 (광주출발)

상해/항주/황산 KE 4일 649,000 ▶6월 20, 27일 / 7월 4, 11일

패키지6 (광주출발)

상해/황산/항주/주가라 KE 5일 625,000 ▶6월 23일 / 7월 7일

☎ 공문표(항공) : 공항세, 출국세, 전정비(항공, 현지교통, 유류세, 19인 여행보험)

☎ 대표항사(항공) : 단박(18,000), 기사(10,000), 기타(10,000)

☎ 대표항사(관광) : 단박(18,000), 기사(10,000), 기타(10,000), 클럽하우스 증식, 캐디, 클럽 렌탈비

☎ 상가(도매)는 현금 및 현금영수증 발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일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